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취업 문턱은 낮추고, 기회는 넓힙니다.

- 고용노동부, 4.20.(월)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0일(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추경 신속집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전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청년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1.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1.3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20·30대 쉬었음 청년도 감소했으나 66.1만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와 함께 경력채용 선호 등으로 높아진 취업 문턱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품제조업·수출입 관련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축소·보류하는 등 중동전쟁의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현장실습 및 일경험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수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취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역량향상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였다. 청년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운영기관 및 신규 훈련과정 신속 선정,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청년 일경험 지원: +112억, +2,00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72억, +10,000명, ▲내일배움카드: +1,512억, +15,000명, ▲국민취업지원제도: +801억, +30,125명 등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의 영향이 지표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산업 등 동향을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는 원자재, 유류비 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은 중·소규모 협력업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고용불안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유가·고환율에 영향을 받는 관광·여행업의 경우 영세여행사 일부에서 휴직·고용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의 깊게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인천 동구가 철강 업황의 어려움으로 고용둔화에 직면하였음을 감지하고 고용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앞으로도 지방정부 등과의 면밀한 협조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추경을 하루빨리 집행하겠다”라며, “중동전쟁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인천 동구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 징후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